

---

# 202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 기획 경제 위원회 )

# 국 외 여 행 개 요

##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호주	여행도시	시드니	방문기관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의회 등
여행목적	분 야	※ 비교시찰			
	○ NSW 주의회 예방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논의 ○ NSW 주 투자청,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등 방문 및 브리핑 청취 ○ NSW 주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교류협력 강화				
여행기간	2022. 10. 18.(화) ~ 10. 24.(월), 5박 7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기 획 특 경 제 위 원 회	임기4급	강상원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기 획 특 경 제 위 원 회	행정5급	정진영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기 획 특 경 제 위 원 회	임기6급	최범준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기 획 특 경 제 위 원 회	행정8급	안나현	

## 나. 여행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의회-NSW 주의회 간 우호 및 교류 강화
  - 양 의회 간 상호방문을 통한 한층 더 깊은 신뢰관계 구축
  - NSW 주의 해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브리핑
  - NSW 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의회 의원 및 내각 장관 면담 및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NSW 주 간 정책비교
- NSW 주 투자청,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등 방문 및 브리핑 청취
  - 스타트업 지원 정책 논의 및 현장 방문
  - 주요 투자유치 정책 및 투자국가 현황 브리핑
  - 서울특별시-NSW주 간 투자활성화 논의
- Kotra 시드니 무역관 방문
  - NSW 주 진출 기업 소개 및 시드니 무역관 업무 브리핑
  - 한-호 도시간 무역 투자 진흥 방안 논의 등
- NSW 주 한인사회 주요인사와 교류협력 강화
  - 라이드 시의회 방문 및 시장 겸 의장, 한인 시의원(2명) 면담
  - 민주평통자문회의 호주협의회장 및 한인사회 명사 면담

##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본문 첨부

# 202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

## 1 방문 개요

- 방문일정 : 2022.10.18.(화)~10.24.(월), 5박 7일
- 방문기관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 NSW 투자청 등
- 방문목적
  -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례 비교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정책 비교 조사
  - NSW 주 진출 서울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조사
  - NSW 주 의회 운영 및 의사결정 제도 조사 및 그 외 유관기관 시찰
- 방문단 : 총 11명 (의원 7명, 수행공무원 4명)

### ○ 의원(7명)

연 번	소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숙 자	여	단 장
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김 동 욱	남	
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김 지 향	남	
4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신 복 자	여	
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장 태 용	남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최 민 규	남	
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홍 국 표	남	

### ○ 수행공무원(4명)

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임 기 4 급	강 상 원	남	
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행 정 5 급	정 진 영	여	
1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임 기 6 급	최 범 준	남	
1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행 정 6 급	안 나 현	여	

## 2 주요 일정

일 자	장 소	내 용
10/18(화) 1일차	인천공항 (아시아나 OZ601)	◦ 인천공항 출발(20:00)
10/19(수) 2일차	시드니공항	◦ 시드니공항 도착(08:30)
	NSW 주의회	◦ 서울시와 우호협력 도시인 NSW 주의회 방문(10:30~12:30)
	시드니 컨벤션센터	◦ 시드니 전시시설 시찰(13:30~14:10)
	파워하우스 뮤지엄	◦ 도시재생시설(박물관) 시찰(14:30~15:20)
10/20(목) 3일차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 창업보육 시설 방문(11:00~12:30)
	NSW 주 투자청	◦ NSW주 투자전담기관 방문(14:00~16:00)
10/21(금) 4일차	Kotra 시드니무역관	◦ 주호주 한국무역지원기관 방문(10:00~11:30)
	라이드 시의회	◦ 라이드 시의회 방문(16:00~17:00)
10/22(토) 5일차	블루마운틴	◦ (문화탐방)블루마운틴 국립공원(10:30~11:30)
	이동 및 개인정비	◦ 이동 및 개인정비(11:30~16:00)
	달링하버	◦ 달링하버 수변시설 시찰(16:00~18:30)
10/23(일) 6일차	고스포드 파머스 마켓	◦ 지역 전통시장 시찰(09:00~09:30)
	이동 및 휴식	◦ 이동 및 휴식(09:30~11:30)
	페킹가든차이니즈 레스토랑	◦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및 한인 명사 오찬(11:30~13:00)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관람(15:00~16:00)
10/24(월) 7일차	시드니공항	◦ 시드니공항 출발(10:30)
	인천공항	◦ 인천공항 도착(20:30)

### □ 계획안 대비 일정변경 사유

-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및 NSW 한인회장 요청에 따라 라이드 시의회 방문 및 한인 명사 오찬 추가
- 당초 계획된 록스마켓에서 이동동선이 용이한 고스포드 파머스 마켓으로 변경

### 3 방문 준비 내용

#### □ 공무국외활동 주제 및 방문기관 선정관련 간담회

##### ○ 제1차 간담회

- 일 시 : 2022. 7. 25.(월) 09:50 ~ 10:20
-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장(의원회관 3층)
- 참 석 : 23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2명, 전문위원실 직원 11명)
- 주요내용 : 공무국외활동 주제 선정, 주제별 방문국가 및 기관선정

##### ○ 2차 간담회

- 일 시 : 2022. 9. 14.(수) 9:30 ~ 10:30
-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장(의원회관 3층)
- 참 석 : 15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0명, 전문위원실 직원 5명)
- 주요내용 : 호주 방문 기관 및 현장시찰 대상 장소 논의



❖ 사전간담회 개최 ❖

### ○ 제3차 간담회

- 주요내용 : 공무국외활동 과제 최종 점검
- 일 시 : 2022. 10. 13, 14:00 ~ 15:00
-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장(의원회관 3층)
- 참 석 : 12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5명, 전문위원실 직원 등 7명)



### □ 유관기관 의견 청취 및 사례자료 수집

#### ○ 유관기관 방문 및 의견 청취(1차)

- 일 시 : 2022. 8. 11.(목) 13:00 ~ 14:00
- 장 소 : 창업허브창동(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참 석 : 13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4명, 전문위원실 직원 9명)
- 주요내용
  - 방문 기관 선정 관련 자문
  - 서울시 스타트업 허브 및 창업 지원제도 관련 관련 기관 의견 청취

#### ○ 유관기관 방문 및 의견 청취(2차)

- 일 시 : 2022. 8. 22.(월) 11:00 ~ 12:00
- 장 소 : 서울투자청(종로구 종로38 글로벌센터빌딩)
- 참 석 : 17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5명, 전문위원실 직원 등 12명)
- 주요내용 : 스타트업 및 창업자금지원 제도 분야 비교 자문



○ 유관기관 방문 및 의견 청취(3차)

- 일 시 : 2022. 9. 21.(수) 10:30 ~ 12:00
- 장 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송파구 양재대로 932)
- 참 석 : 18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0명, 전문위원실 직원 등 8명)
- 주요내용 : 공영도매시장 운영 등 방문 기관 비교사항 검토



#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2. 9. 28.(수)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7-2회의실(의원회관 7층)
- 참 석 : 9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5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초빙강사 : 김유진 진흥관(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 주요내용 : 호주 스타트업 생태계 및 창업보육 정책 현황

##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사전간담회 개최계획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호주의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보육 등 관련 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I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2. 9. 28.(수) 10:00 ~ 11:00
- 장 소 : 의원회관 3층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실
- 참석대상 : 기획경제위원회 시찰단(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강 사 : 김유진 진흥관(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 II 강의내용

- 호주 스타트업 생태계 및 창업보육 정책 현황
  - 호주의 연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성장의 원동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 <NSW-서울시 간 협력사항>

- ※ \*서울시-NSW 협력강화를 위한 MOU 체결(\* 17. 8. 24)
  - 협력분야
    - 외국인투자 유치
    - 핀테크·바이오테크·디지털 크리에이티브를 포함한 창업생태계
    - 국제 행사 및 회의
- ※ NSW 주총리 연담(\* 22. 7. 25)
  - 전선도시인 서울-NSW주간 교류협력 강화 논의
  - 페로테이 주총리 서울바이오허브 방문 등

## <강사 약력>



**Yoojin Kim**  
Director, NSW Trade & Investment, Republic of Korea

Yoojin Kim has been NSW Government's Trade & Investment Director for Republic of Korea since 2014.

Yoojin has extensive insight into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gained through management roles at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and Korea's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In these positions, Yoojin managed programs to help SMEs achieve success in global markets. She also managed NIPA's network of eight international offices.

Yoojin's public sector experience is balanced by senior management roles in the private sector, for both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IT organisations. In her role with SoftForum, Yoojin managed and delivered CODEGATE, one of the world's largest hacking competition and global security conferences. As the Chief Operating Officer of Truston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a hedge fund investment manager, Yoojin drove growth by identifying and marketing to key investors, managed relationships with investors and brokers, and was responsible for fund compliance and reporting.

Yoojin has a BA in Mass Communications from Yonsei University and a Master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from Yonse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he has studied and worked in Korea, Japan and Singapore. Yoojin is fluent in Korean, Japanese and English.

#### 김유진 진흥관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 연세대학교 매스커뮤니케이션(언론홍보영상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싱가포르 Pte Ltd(헤지펀드 투자운용사) 최고운영책임자(COO)
- 한국 국가정보산업진흥원(NIPA)
- (현)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2014~)



## <강사 약력>



### **Yoojin Kim**

Director, NSW Trade & Investment, Republic of Korea

*Yoojin Kim has been NSW Government's Trade & Investment Director for Republic of Korea since 2014.*

*Yoojin has extensive insight into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gained through management roles at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and Korea's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In these positions, Yoojin managed programs to help SMEs achieve success in global markets. She also managed NIPA's network of eight international offices.*

*Yoojin's public sector experience is balanced by senior management roles in the private sector, for both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IT organisations. In her role with SoftForum, Yoojin managed and delivered CODEGATE, one of the world's largest hacking competition and global security conferences. As the Chief Operating Officer of Truston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a hedge fund investment manager, Yoojin drove growth by identifying and marketing to key investors, managed relationships with investors and brokers, and was responsible for fund compliance and reporting.*

*Yoojin has a BA in Mass Communications from Yonsei University and a Master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from Yonse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he has studied and worked in Korea, Japan and Singapore. Yoojin is fluent in Korean, Japanese and English.*

### 김유진 진흥관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 연세대학교 매스커뮤니케이션(언론홍보영상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싱가포르 Pte Ltd(헤지펀드 투자운용사) 최고운영책임자(COO)
- 한국 국가정보산업진흥원(NIPA)
- (현)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2014~)

## 4 방문 결과

### 1 NSW 주의회 방문

- 일 시 : 2022. 10. 19(수) 10:30
- 장 소 : NSW주의회(Parliament House,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 참석자 :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 주 총리 겸 하원의장, 메튜 메이슨콕스 상원의장, 데미안 튜드호프 NSW 주 재무·소상공인 장관, 스콧 팔로우 상원의원, 팀 제임스 하원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안상현 시드니사무소장, 주시드니 총영사관 박영석 전문관 등
- 진행순서
  -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 주 총리 간담회(NSW 주의회 하원의장실)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답례말씀 및 방문단 소개
  - NSW 주의회 및 주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소상공인 정책 소개, 질의응답(메튜 메이슨콕스 상원의장, 데미안 튜드호프 장관, 스콧 팔로우 상원의원, 팀 제임스 하원의원, 상원 사무처장, 하원 사무처장 등 참석)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NSW 주 총리 (도미니크 페로테이)	<b>&lt;환영사&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울시와 NSW 주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왕래가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종료단계에 이르러 적절한 시기에 NSW 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함.</li><li>○ 또한, 시드니 총영사관에서도 두분의 영사가 함께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li></ul>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위원장	<b>&lt;답사&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늘 만남에 대해 환대해 주시고 의회에 태극기까지 제양해 주신점에 감사함.</li><li>○ NSW 주의회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주도인 시드니시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대의 산업도시로 알고 있음.</li><li>○ 호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국이고, 대한민국도 협정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협조를 바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에 따라 한-호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상호간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li> <li>○ 오늘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의회 간 의사결정 방법을 비교하여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상호 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li> </ul> <p>〈서울시의회 방문단 소개〉</p>
<p style="text-align: center;"><b>NSW 주 총리 (도미니크 페로테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 주는 내년에 한국방문을 예정하고 있어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NSW 주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등 준비해주신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li> <li>○ 먼저 주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되며, 하원은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원은 영국의 하우스 오브 로드 시스템과 같으며, 42명의 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됨.</li> <li>○ 입법화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내각에서 어떤 법안을 입법화 할 것인지 결정하고,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통과해야 함. 이후 총리에게 입법안이 제출·발표되면, 입법 찬반 절차를 진행하게 됨.</li> <li>○ 지금 제가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 이후에는 두 분의 장관께서 질의문답을 진행할 것임.</li> </ul> <p>〈도미니크 페로테이 이석 및 리셉션 룸으로 이동 후 질의응답 속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스콧 팔로우 상원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주정부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스트라스필드 시장을 역임했음.</li> <li>○ 서울특별시의회가 NSW 주의회 설립 20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팀 제임스 하원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교통·사회인프라 위원회 위원장이고, 제 지역구인 윌러비는 한국교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li> <li>○ 한국교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활동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해서 저는 그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함.</li> <li>○ 저는 주의원이 되기 전에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일을 했고, 아시아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똑똑하며, 창의적인 시장(market)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li> </ul> <p>〈법안포결을 위해 이석〉</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위원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가 11개, 의원은 112명임.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과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li> </ul>

	<p>서울산업진흥원,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등을 소관기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방문한 서울특별시의원 7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임.</li> </ul>
<p>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을 두어 전국단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이나 용자보증을 시행하고, 서울시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지역단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용자보증을 시행하고 있음.</li> <li>○ NSW 주는 산하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 창업과 용자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지?</li> </ul>
<p>NSW주 재정·소상공인장관 데미안 튜드호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함.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80%가 중소기업임.</li> <li>○ 호주는 자유시장(free market)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먼저 원론적으로 저희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상상력과 활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하기보다는 실제로 마켓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뷰잉이나 권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li> </ul>
<p>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 주의 실업률과 주가 일자리와 고용창출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li> </ul>
<p>NSW주 재정·소상공인장관 데미안 튜드호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주의 실업률은 3.6~3.7% 정도임.</li> <li>○ NSW주는 고용률 향상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120억 호주달러를 집행했음.</li> <li>○ 그 밖에도 감세를 통해서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음.</li> </ul>
<p>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 NSW투자청과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할 예정임. 대한민국이나 서울특별시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NSW 주의 창업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li> </ul>
<p>NSW주 재정·소상공인장관 데미안 튜드호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투자청과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방문을 하신다니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NSW투자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임.</li> <li>○ 우리는 NSW주 기업들의 세계화를 추진중이며,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청을 설립하고 각국에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설했음.</li> <li>○ 이런 커넥션을 통해 상호 투자와 무역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 주요질문

- 상원과 하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김동욱 의원)
- 상원과 하원 사무기구의 구성과 직원은?(김지향 의원)
- 심각한 대립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안 심사 시에 의사결정 방식은?  
(장태용 의원)
- NSW 주의 입법과정에서 연방정부에 의한 제한이나 입법한계는?(최단규 의원)
- 코로나19에 대한 주의회의 대응정책은? 최근 글로벌경제 악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나 추진중인 전략과 사업은?(신복자 의원)

○ 방문사진



❖ 총리 기념촬영 ❖



❖ 질의응답 ❖



❖ 총리 차담회 ❖



❖ 상원 기념촬영 ❖

## ②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Sydney Startup Hub) 방문

- 일 시 : 2022. 10. 20(금) 11:00
- 장 소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11 York St, Sydney NSW 2000)
- 참 석 자 : 안톤 헬케 NSW 국제마케팅 부장, 에단 콜킬 팀장, 카시아 로우, 사라 라버티, 캐롤 프리엘, 린 스타트업 허브 매니저
- 진행순서
  - 영접 및 기관 소개 브리핑(안톤 헬케 NSW 주 투자청 국제마케팅 부장)
  - 시설 소개 및 입주 스타트업 시찰 및 질의응답(린 스타트업 허브 매니저)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NSW 주 투자청 캐롤 프리엘	<p>&lt;브리핑 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부터 시작된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는 주 정부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소유의 오래된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3천 5백만 호주달러를 투자했고, 12개 층 중 11층은 NSW 주 투자청이 사용 중임.</li> <li>○ 스타트업 보육을 주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쉬버너, 스톤앤처크, 탱크스트림, 웨스트팩, 오퍼스 이노베이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민간 스타트업 보육 기관이 층별 나뉘어진 스타트업을 지원함(주정부는 빌딩 전체 시설 관리를 하고 스타트업 보육 사업은 민간 보육기관이 수행하는 구조).</li> <li>○ 이 공간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허브는 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투자자 소개 및 유치, 교육, 인큐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음.</li> <li>○ 지난 5년간 성공적인 운영을 해 왔으며, 현재 2천여개 스타트업이 허브를 이용했고,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오퍼스 등의 대기업들이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li> <li>○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li> </ul>

	경제활성화이며,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문화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시드니스타트업허브 린 매니저	<p>〈스타트업 지원 공간 및 공동 사무실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곳은 스톤 앤 처크가 운영하는 공간임. 서울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허브는 무상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입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월 615달러).</li> <li>○ 벽면에 있는 로고는 지금까지 이 공간을 거쳐간 스타트업들이고, 가상화폐 업체인 리플(코인)도 이 공간을 거쳐갔음. 아직 입주해 있는 기업도 있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해서 독립하거나 대기업에 매각된 기업들도 있음.</li> <li>○ 주로 테크(tech)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70% 정도는 핀테크(fintech)관련 기업임.</li> <li>○ 공용사무실은 비정기적 이용자와 상시 이용자로 구분되는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시 이용자는 주 7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함.</li> <li>○ 공간 지원 뿐만아니라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와 펀딩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이어주기 위한 이벤트를 자주 개최함.</li> <li>○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펀딩 이벤트를 통해 2만 5천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 주 정부가 별도로 2만 5천달러를 무상으로 추가 지원하며,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심사를 통해 1백만달러(한화 약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융자 또는 투자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형 지원)</li> </ul>

○ 주요질문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설립과 운영 주체는?(신복자 의원)
- 테크 스타트업 외에 요식업 등 일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장태용 의원)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외에 NSW 주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은?(홍국표 의원)
- NSW 주의 스타트업 관련 펀딩, 투자, 자금 지원 제도는?(이숙자 의원)
- NSW 주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은 어느 단계까지인지?(김지향 의원)
-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입주기업 만족도는?(김동욱 의원)
- 스타트업들이 주로 요청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 지원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인지?(이숙자 의원)

○ 방문사진



❖ 브리핑 ❖



❖ 입주사무실 시찰 ❖



❖ 시설 소개 ❖



❖ 기념사진 ❖

### 3 NSW 주 투자청 방문

- 일 시 : 2022. 10. 20(목) 14:00
- 장 소 : NSW 주 투자청(5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 참 석 자 : 안톤 헬케 NSW 국제마케팅 부장, 에단 콜킬 팀장, 카시아 로우, 사라 라버티
- 진행순서
  - 영접 및 기관 소개 브리핑(안톤 헬케 NSW 주 투자청 국제마케팅 부장)
  - NSW 주 투자청 현황 및 웨스트미드 의료 단지 관련 브리핑(에단 콜킬)
  - 질의응답 및 차담회
  - 기념품 전달 및 사진촬영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NSW 주 투자청 안톤 헬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투자청 글로벌 마켓 디렉터인 안톤 헬케임.</li> <li>○ NSW투자청과 서울시는 1991년에 협약을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험을 상호 교환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 7월에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주 총리가 한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음.</li> <li>○ 2015년에도 상호 MOU를 체결했고, 2017년에도 주총리가 서울을 방문한적이 있음. 2021년에는 상호 교류 30주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교류를 재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함.</li> <li>○ 호주에서는 이런 공식미팅을 하기 전에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의식을 함. 이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지난 시간과 현재의 원주민에게 먼저 존경을 포함.</li> <li>○ 스타트업 허브를 먼저 방문하고 오셨는데 NSW주가</li> </ul>

	<p>기술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셨을것으로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인사 후에 에단 콜킬이 NSW주 투자청 현황과 방문전 준비자료를 통해 관심을 가져주신 NSW보건청과 미드웨스트 바이오 단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임.</li> </ul>
<p><b>이숙자</b> <b>기획경제위원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방문 요청에 응해주신 NSW투자청에 깊은 감사를 드림. NSW주는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고 주도인 시드니 시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대의 산업도시로 알고 있음.</li> <li>○ 특히 호주의 경제중심지로서 금융과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에 NSW투자청을 설립하여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서울시도 올해 서울투자청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는 NSW투자청 방문을 통해 양 도시간 해외투자 유치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li> </ul> <p>[방문단 소개]</p>
<p><b>에단 콜킬</b> <b>NSW투자청</b> <b>동아시아 담당</b></p>	<p>[호주 및 NSW주 정부-의회제도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는 1950년 한국전쟁에서 동맹국으로 참여하여 1만 7천명을 파견하고 340명이 전사했음.</li> <li>○ NSW주 한국교민은 5만 2천명 수준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한-호간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57억 달러이고 주로 석탄 등의 자원이지만 최근에는 소고기 등의 축산업도 2억 1,300만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음.</li> <li>○ 호주의 대 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이며 호주시장에서 현대차가 3위, 기아차가 5위 수준임.</li> <li>○ 무역 뿐만 아니라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상호가 교역량이 3배 가량 증가했음.</li> <li>○ NSW주와의 교역량은 6조원 규모로 이는 싱가포르나 홍콩과의 교역규모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스타트업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NSW주는 호주</li> </ul>

스타트업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또한 600여개 다국적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고 이 중에 한국기업은 70개 정도입니다.

[자료설명]

- NSW주 투자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R&D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할지 결정하고, 특별한 산업이나 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있고, NSW주에 대한 투자유치와 NSW주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세제혜택(NSW주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민간투자를 통한 코펀딩(co-funding), 신규투자기업들 위한 신속한 인허가, 규제완화,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는 NSW주에서 고용한 직원 2명이 상주해서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NSW주 투자청 해외 직원은 50여명이고 최근 북아시아 관련 중요사항은 청정에너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 또한 투자위원회 외에도 빠른 투자결정을 위해 투자청장 수준의 직급인 secretary를 두고 투자유치에 대한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 ○ 주요질문

- NSW 주 투자청의 설립배경과 조직형태는?(김동욱 의원)
-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세금감면, 공공토지 장기임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외기업들이 주로 원하는 지원은?(김지향 의원)
- 북준주의 주도 다윈시 다윈항을 중국이 99년 조차하면서 호주와 중국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데 해외자본 유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은?(장태용 의원)
- NSW 주 투자청 해외사무소는 주재국의 호주대사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방정부와 공동운영하는 것인지?(최민규 의원)
- 올해 2월 서울시도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서울투자청을 설립했다. 해외투자유치 관련되어 조언해 주고 싶은 점은?(신복자 의원)

○ 방문사진



❖ 방문단 소개 ❖



❖ 브리핑 ❖



❖ 차담회 ❖



❖ 기념품 교환 ❖

#### 4 Kotra 시드니 무역관

- 일 시 : 2022. 10. 21(금) 10:00
- 장 소 : Kotra 시드니 무역관(19.01 Level 19, 570 George St. Sydney NSW 2000)
- 참석자 : 김병호 관장, 김하중 과장
- 진행순서
  - 기관 소개 및 브리핑(김병호 관장)
  - 질의응답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김병호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회에서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에 방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호주간 무역현황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li> <li>○ 호주에는 2개의 무역관(시드니, 멜버른)이 있으며, 시드니 무역관은 1967년 7월에 개설했고,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음(본사 3명, 현지채용 15명).</li> <li>○ 호주에서의 무역관의 법적지위는 외국정부기관이며, 대양주에서는 3개의 무역관이 있음(호주 2개,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li> <li>○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호주는 30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DF 기록했으며,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올해 초 4.2%성장이 예상됐으나 3.4%로 하향 조정됨.</li> <li>○ 실업률은 7월 기준 3.4%로 44년만에 최저수준이며,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로 인력부족 상황으로 볼 수 있음.</li> <li>○ 물가지수는 현재까지 6.1% 수준이지만 연말까지는 7~8% 수준으로 예상됨. 정부부채도 GDP의 45% 수준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건전한 국가임.</li> <li>○ 다만, 금리는 9월에 0.5%포인트 인상하여 2.35%까</li> </ul>

	<p>지 인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의 교역동향을 보면 9월까지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143억 달러, 대 호주 수입은 342억 달러이며 한국은 호주의 교역국가 중 5위권임.</li> <li>○ 2021년 총교역액은 427억 달러였는데 올해에는 8월까지 430억 달러로 전년보다 훨씬 성장했음.</li> <li>○ 주로 석유, 자동차, 의약품, 소비재, 철도차량 등을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광물, 천연자원, 소고기 등임.</li> <li>○ 영어권 국가인 호주는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투자 순위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광업 분야를 위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음.</li> <li>○ 최근 현대로템이 무인철도를 수주했지만 호주노조의 반대로 실제 운행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K-9, 레드백 등의 국방산업에 대한 교역이 있었음.</li> <li>○ 호주에 대한 투자로는 핵심광물 사절단이나 핵심광물 기획보고서, 핵심광물 가격,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하고 있음.</li> <li>○ 전반적으로 대 호주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호주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사업이 많아지면서 건축자재 납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 대형 유통망을 통한 소비재 수출 입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ul>
<p>최민규 서울시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도 해외기업의 서울시 투자를 위해 서울투자청을 설립했음.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의 입장에서 조언해 줄수 있는 점은?</li> </ul>
<p>김병호 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호주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금융투자 분야에 있었음. 특히 페퍼저축은행, 맥쿼리 자산투자 등이 있음.</li> <li>○ 최근에는 호주광물기업이 한국에 정제공장을 설립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호주는 금융에서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ul>

김하중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에 대한 대규모 금융투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소형가전, 어슬레틱, 가구 등 일부 호주 브랜드에서 한국투자를 진행하고 있음.</li> </ul>
김병호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경에는 호주가 수소에너지 수출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이 경우 최적의 협력 파트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에너지 정제기술이 발전한 국가로 예상함.</li> <li>○ 특히 노동당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친환경에너지에 신경쓰고 있음.</li> <li>○ 최근에는 한류붐으로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영희인형이 오페라하우스에서 전시되기도 하고, 게임산업이나 게임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임.</li> <li>○ 11월부터 호주 콰타스 항공이나 제스타가 한국에 재취항할 예정이며, 티웨이항공 등 LCC의 재취항도 이뤄질 예정이라 한국과 호주간 민간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예정임.</li> </ul>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SBA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호주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을지?</li> </ul>
김병호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처음으로 코트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NSW주 정부와 함께 한국기업 홍보를 위한 웨비나를 진행했음. 차기 기획시에 연락을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li> </ul>

### ○ 주요질문

- 한-호간 금융 및 스타트업 관련 교역 규모와 수준은?(김지향 의원)
- 시드니무역관을 통해 호주에 진출한 주요기업과 서울소재 기업은?(홍국표 의원)
- 서울시는 서울투자청을 설립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노력중임. 시드니무역관에서 해외자본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점을 조언한다면?(장태용 의원)
- 최근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ESG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고,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호주의 관련 정책이나 지원은?(신복자 의원)
- 시드니무역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한 사업들이 있는지? 정기적인 협력체계는?(이숙자 의원)

-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산업 기업의 호주 진출 문의가 많은지? 또는 호주 문화산업기업의 한국 투자 문의는 없는지?(최민규 의원)

○ 방문사진



❖ 브리핑 ❖



❖ 기념촬영 ❖



❖ 브리핑 ❖



❖ 기념품 증정 ❖

## 5 라이드 시청 방문

- 일 시 : 2022. 10.21.(금) 16:00
- 장 소 : 라이드 시청
- 참 석 자 : 조던 레인 시장 겸 시의회 의장, 사르키스 에델리안 부시장, 페니 페더슨 시의원, 한정태 시의원, 송강호 시의원, 송석준 한인회장, 백장수, 수잔 리
- 주요내용 :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및 한인사회 지원 논의
- 진행순서
  - 조던 레인 시장 환영사 및 라이드시 소개
  - 이숙자 위원장 답례사 및 방문단 소개
  - 라이드시의 한인사회 공조 및 기여 관련 환담, 한인회 주최 만찬 참석
- 방문사진



❖ 브리핑 ❖



❖ 기념촬영 ❖



❖ 기념품 증정 ❖



❖ 기념품 증정 ❖

## 6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및 호주 한인 명사 오찬 간담회

- 일 시 : 2022. 10. 23.(일) 11:30
- 장 소 : 페킹 가든 차이나즈 레스토랑(1 Dane Dr, Gosford NSW 2250)
- 참 석 자 :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고동식 회장, 송석준 한인회장, 조기덕 전 한인회장, 찰스스튜어스대학 신숙희 교수 등
- 진행순서
  - 고동식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환영사
  - 이숙자 위원장 답례사
  - 해방 후 한인 호주이민사 구술(조기덕 전 한인회장)
  - 오찬 및 간담회
- 오찬 간담회 사진



❖ 오찬 간담회 ❖



❖ 한인 명사소개 ❖



❖ 한인 이민사 구술 ❖



❖ 오찬 간담회2 ❖

## 5 방문 성과

- 서울특별시의회-NSW 주의회 간 교류 및 정책 협조 강화
  - 주총리 및 상·하원의원단 2023년 서울시 방문 의사 전달
  - 스타트업 지원정책 관련 상호 정책 교류 요청
  
- 서울시-NSW 주 상호간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판로 개척 추진
  -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통한 웨비나 참여 시사
  
-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를 활용하는 MicroSoft 등 세계적 기술기업의 서울시 스타트업 보육기관 운영 참여를 통해 노하우 활용 필요
  - 저렴한 임대료 이외에 대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
  - Co-funding 활성화 및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한 스타트업 지원 필요
  - 무상 지원금 도입 및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검토
  
- NSW주 한인 명사 및 교포와 네트워크 형성
  - 고동식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기획경제위원장 예방, 시드니시 한인행사에 서울시 참여 및 지원 요청

붙임 1. 기관방문 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1부.  
2. 기관별 개황 1부. 끝.

**붙임 1****기관방문 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1	NSW 주의회	총리 겸 하원의장	도미니크 페로테이
2	NSW 주의회	상원의장	메튜 메이슨-콕스
3	NSW 주의회	NSW주 재무-소상공인 장관	데미안 튜드호프
4	NSW 주의회	상원의원	스콧 팔로우
5	NSW 주의회	하원의원	팀 제임스
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드니총영사관	시드니사무소장 겸 영사	안상현
7	시드니총영사관	전문관	박영석
8	NSW 주 투자청	국제마케팅 부장	안톤 헬케
9	NSW 주 투자청	한-일지역 팀장	에단 콜킬
10	NSW 주 투자청	한-일지역 담당	카시아 로우
11	NSW 주 투자청	한-일지역 담당	사라 라버티
12	시드니 스타트업	커뮤니티 매니저	캐롤 프리엘
13	시드니 스타트업	매니저	린
14	Kotra 시드니 무역관	관장	김병호
15	Kotra 시드니 무역관	과장	김하중
16	라이드시의회	시장 겸 시의회의장	조던 레인

17	라이드시의회	부시장	사르키스 예텔리안
18	라이드시의회	시의원	페니 페더슨
19	라이드시의회	시의원	한정태
20	라이드시의회	시의원	송강호
21	NSW 주 한인회	한인회장	송석준
22	NSW 주 한인회	회원	백장수
23	NSW 주 한인회	회원	수잔 리
24	NSW 주 한인회	전 회장	조기덕
25	시드니 찰스 스튜어트대학	교수	신숙희
26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회장	고동식

## 붙임 2

# New South Wales 주의회 개황

### □ 개요

- 호주에서 처음이자 가장 오래된 의회이며, 청사는 중심업무지구 (CBD)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임.
  - 1823년~24년 : 영국 “NSW의회 설립 입법화” 및 의회 구성
- 정치제도 : 연방제도 + 의원내각제
- 의회제도 : 양원제(하원 93명, 상원 42명)
  - 하원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 구성
  - 상원 : 법률안 제정 등의 권한 보유
- 정당 구조

구 분	하원 (legislative Assembly)	구분	상원 (Legislative Council)
호주노동당	37	동물정의당	2
호주자유당	33	호주노동당	14
국민당	12	연합(자유/국민)	17
녹색당	3	무소속	2
포수·어부·농민당	2	포수·어부·농민당	2
무소속	6	녹색당 / 플라인 한슨의 일국당	3 / 2
합계	93	합계	42

### ○ 선거 제도

의회	의석수	임기	선거주기	선출방식
상원	4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sup>1)</sup> (Proportional Representation)
하원	93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sup>2)</sup>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 주 1 : 비례투표제는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 + 1로 나누어 쿼터를 계산하여, 쿼터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자동 당선되고, 당선자의 초과표를 각 투표자의 2선호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가중치로 곱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한 결과 쿼터를 충족하면 2차 당선자로 확정
- 주 2 : 우선순위투표는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선호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1919년부터 시행). 모든 후보자에 대해 각각 우선 순위를 표기하거나,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

○ 주 총리(46대) : 도미닉 페로테이(Dominic Perrottet. 자유당. 2021.10~. 165년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 만 40세)

○ 위원회 현황

구 분	하원 (legislative Assembly)	상원 (Legislative Council)
상 임	공동체서비스 환경계획 투자산업 및 지역개발 법 및 안전 의회권위 및 윤리 상설 명령 및 절차 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등 7	법사 제1위원회 : 수상 및 재정 제2위원회 : 건강 제3위원회 : RYDBR 제4위원회 : 고객서비스 및 자연자원 제5위원회 : 지역 및 공동체 제6위원회 : 교통 제7위원회 : 계획환경 권리 / 규정 / 공공책임 / 공무 / 규제 등 16
선 택	-	동물학대법 바랑가루 시선 NSW선거 NSW 관할권 등 16
법 정	공공회계	
합 계	8	32

○ 의원 보수 및 수당

구 분	기본보수	사무실운영	업무추진	기본 선거수당	총 계	
상원	평의원	172,576	-	-	63,275	172,576
	위원장	172,576	10,786	10,786	63,275	194,148
	의장	172,576	98,368	44,870	63,275	315,814
	수석 장관	172,576	134,609	44,870	63,275	352,055
	고위 장관	172,576	115,626	44,870	63,275	333,072
	기타 장관	172,576	98,368	44,870	63,275	315,814
하원	평의원	172,576	-	-	54,030~ 151,820	172,576
	위원장	172,576	10,786	10,786	-	194,148
	의장/야당대표	172,576	98,368	44,870	-	315,814
	부의장	172,576	51,773	34,515	-	258,864
	총리	172,576	163,947	79,917	-	416,440
	고위 장관	172,576	115,626	44,870	-	333,072
기타 장관	172,576	98,368	44,870	-	315,814	

## □ 주의회의 작동원리

-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내각)와 사법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독자적인 기능과 활동 보유
-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주법을 제정하고 재정을 통제하며, 주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
- 하원에서 다수결 지지를 받는 당에 의해 주 정부 형성
- 주 총리와 장관(내각)은 정책을 개발하고 부처를 통해 법률을 수행 (의원 신분 유지)

## □ 호주 정부체계

- 웨스트민스터(영국형태)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자체 특성과 제도보유
- 정부 형성
  - 정부는 정책개발, 정책결정, 정부부처와 기관을 통제하는 그룹
  - 의회 하원(NSW는 Legislative Assembly)의 다수당이 정부 형성
  - 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Premier) : 앤서니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노동당, 2022.05~)
  - 장관은 의회의 의원으로 남고. 정부정책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
- 정부 형태 : 연방 / 6주 & 2지역 / 560지방(NSW는 152)
- 정부 구조
  -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돼 고유 권한과 책임을 행사(권력의 분리)
  - NSW 정부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1902년 헌법과 NSW 주법에 명시
  - 입법부 : 상·하원 및 총독(governor)으로 구성. 법 제정기관. 주민 대표. 행정부 활동을 견제
  - 행정부 : 총리/내각/장관으로 구성. 장관(다수당에서 임명)은 정부정책을 개발·집행·관리 수행하고 의회에 대한 책임
  - 사법부 : 독립된 판사로 구성.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지만, 의회 탄핵 절차 제외하고는 퇴출 불가. 법률 판단. 법의 공정한 적용

# NSW 투자청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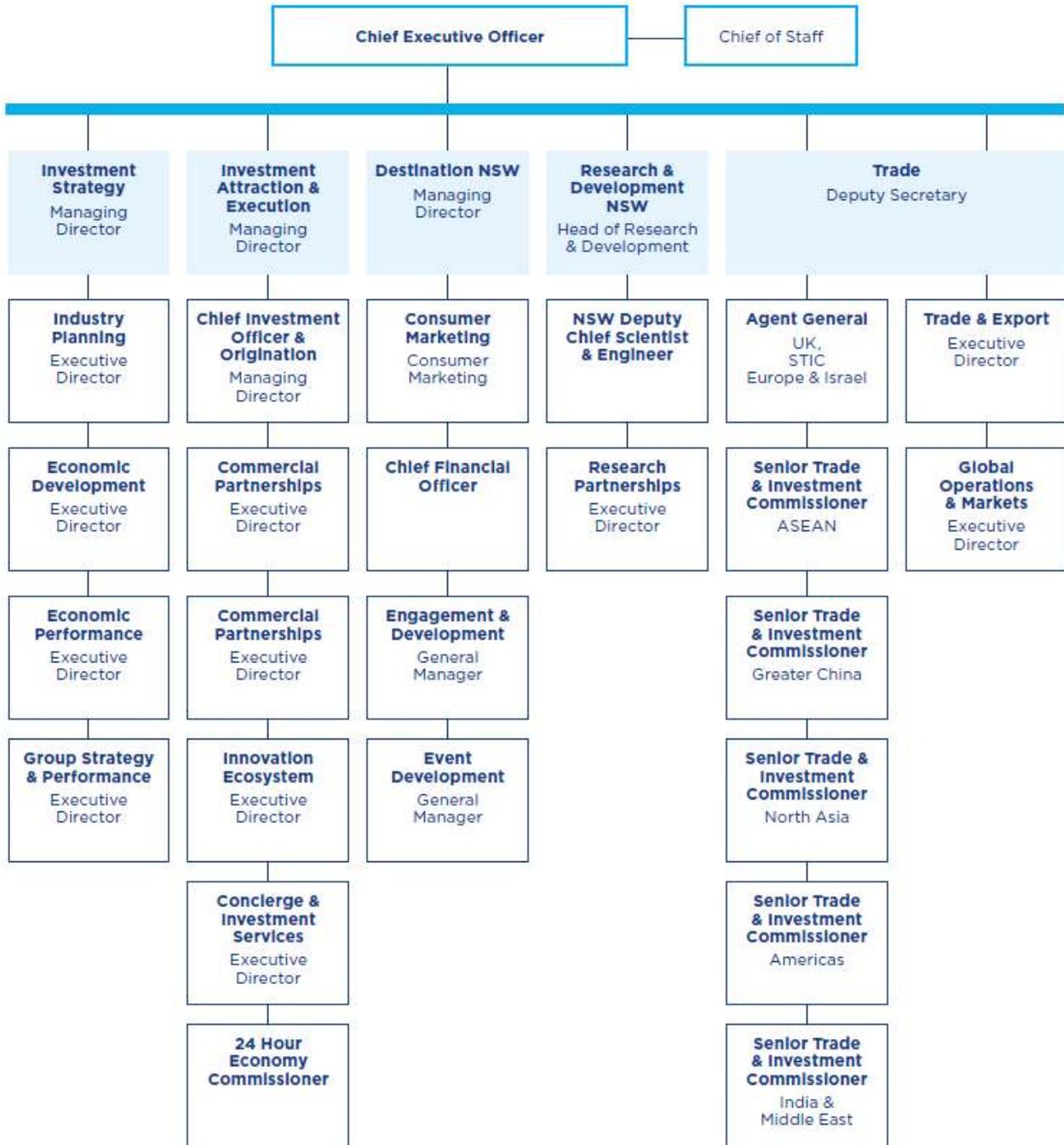
## 가.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22.10.20(목) 14:00~15:00
- 방문 장소 : NSW Investment, 5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AU
- 방문 목적 : 뉴사우스웨일스 정부 투자청 운영 성과를 파악하여, 서울시 투자청(Invest Seoul)의 운영 방안 개선과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나. 방문 주요 내용

- 뉴사우스웨일스 투자청 소개
  - 뉴사우스웨일스 투자청(NSW 투자청)은 뉴사우스웨일스 정부의 경제 개발 및 유치 기관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방문, 연구, 투자, 사업을 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 목표
  - NSW 투자청은 2021년 3월 29일에 호주 총리 및 총리내각부 산하 집행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22년 4월 2일에는 기업 투자 부서를 추가하였으며, 2022년 7월 1일자로 뉴사우스웨일주 주 정부 DEIT(Department of Enterprise, Investment and Trade) 산하 그룹으로 전환
  - 2020-21 년간 보고서에 따르면, NSW 투자청은 설립된 2021년에 이미 286명 규모의 조직으로 출범하였고 투자전략, 투자유치 및 실행, 목적지, 연구개발, 무역 등 5개 본부 내 24개 팀으로 구성
  - NSW 투자청은 NSW 주의 혁신 및 생산성 위원회가 주관하는 NSW 주의 산업개발 및 무역 계획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해당 계획에서 선별된 주요 산업/무역 부문과 해외시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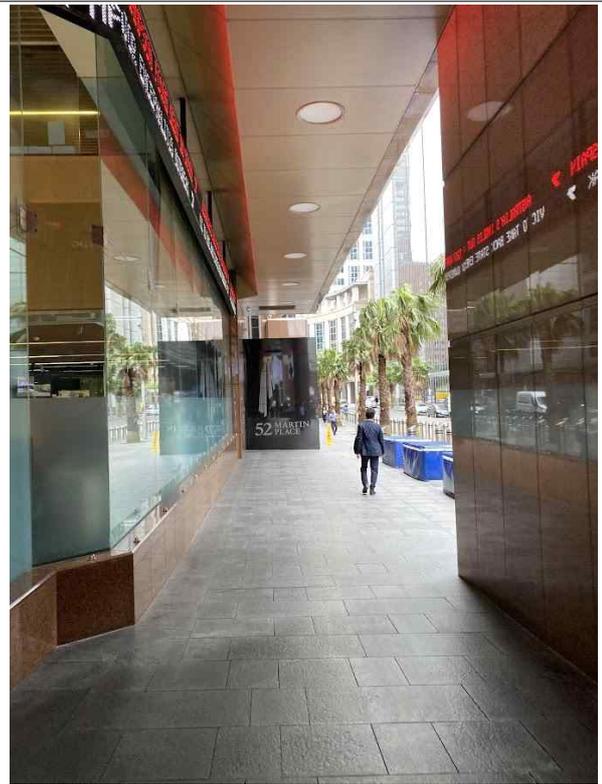
○ 뉴사우스웨일스 투자청 조직도



## ○ 주요 특징

- NSW 투자청은 주의 경제를 성장시켜 NSW 주민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NSW 주가 번영하고 포용적인 기업, 혁신, 인재, 관광, 거주 의 허브가 되기를 돕는다는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
- 이는 통상적인 투자유치기구(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역할보다 확장된 목표로 실제 NSW 투자청의 업무 또한 핵심 부문과 지역의 성장, 글로벌 투자와 인재 유치, 국제 무역 지원을 넘어 R&D 진흥, 스타트업과 혁신 육성 등의 업무를 포괄
- NSW 투자청은 이를 위해 급여 면세, 공동 자금 조달 기회 제공, 계획 가속 승인, 정부 소유 토지 장기 임대, 규제 간소화, 급성장하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 및 성장과 수출 지원, 연결되고 살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기업과 인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이에 더해, 보조금, 리베이트 등의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과 주요 산업 및 무역 부문 별 시설 및 지구 개발 등의 사업을 병행
- NSW 투자청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두바이, 아부다비, 뭄바이, 방갈로어, 싱가포르, 자카르타, 상하이, 광저우, 서울, 도쿄 등에 해외 오피스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토론토, 워싱턴, 산티에고, 베를린, 쿠알라룸푸르, 홍콩, 타이페이 등에도 오피스를 낼 계획
- NSW 주는 의료기술과 생명과학, 디지털 기술, 방위 및 항공, 농식품, 국제교육 및 방문자 경제, 청정경제 및 자원 등을 핵심부문으로 선별해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청 또한 해당 부문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자금 조달, 규제 혁신, 매칭 지원에 더해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시드니, 웨스턴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와 테크 센트럴 스케일업 허브 등 관련 시설을 운영 중
- 지구(precinct) 개발도 진행 중으로 향후 의료기술과 생명과학 부문에서 웨스트미드 헬스 혁신지구를 민관협동으로 확장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테크 센트럴, 웨스턴 시드니 에어로트로폴리스, 메도우뱅크 교육/고용 지구 등의 개발도 추진 중

# 뉴사우스웨일스 투자청(Investment NSW) 방문 사진 자료



# 고스포드 파머스마켓 개황

## 가. 방문 개요

- 방문 일시 : 2022.10.26(일) 09:00~09:30
- 방문 목적 : 주1회 열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마켓 견학

## 나. 방문지 개요

- 주 소 : Showground Rd, Central Coast New South Wales 2250
- 영업 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 7시~오후 12시
- 시장 역사
  - 현재 시장 운영사인 NSW Farmers Market Pty Ltd®가 1999년 모페츠강 항구(Historical River Port of Morphets)에서 최초로 농민과 생산자를 위한 시장을 개발한 이래 농민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음
  - 2000년 3월에는 현재 뉴캐슬 박물관(Newcastle Museum)이 있는 허니서클 철도 창고(Honeysuckle Railway Sheds)에서 오리지널 파인 푸드 마켓(Original Fine Food Market)을 열었으나, 8개월 동안만 운영
  - 2004년 말 브로드메도우 농구경기장에서 처음 시작된 Newcastle City Farmers Market은 헌터에서의 초기 시장 중 하나이며, 2005년 초부터 뉴캐슬 쇼그라운드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 및 장인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1만여 명의 고객들을 불러 모으는 공공장소로 불리게 됨
  - 운영사는 고객들이 지역 농부와 농촌을 보다 쉽게 지원 할 수 있도록 Gosford City Farmers Market 외에도 Newcastle City Farmers Market, Lake Macquarie City Farmers Market, Wyong City Farmers Market 등의 농민시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농부와 장인들을 시장을 통해 꾸준히 소개하고, 농민시장이 제품 개발 및 지역경제, 지속 가능성, 환경 및 관광에 미치는 장점을 홍보하고 있음
- 주요 특징
  - 고스포드 시티 파머스 마켓은 농부 및 생산자, 장인들을 위한 농산물 직판장으로서, 중소 규모의 지역 농장 및 식품 비즈니스를 육성하여 소비자들이 현지 지역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 및 시식할 수 있도록 운영

-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직접 농부 및 생산자와 농산물(식품)에 대한 정보(생산정보, 사용방법, 보관방법 등)를 교환하고, 요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으며 직접 시식도 할 수 있음
- 시장 홈페이지에는 고객들을 위해 매월 시장 개장 일정과 농민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도 제공하고 있음

○ 판매상인/판매상품

- 현재 운영중인 판매상인(Stallholders)은 크게 부티크 와이너리(Boutique Wineries), 농부/생산자(Farmers/Producers), 미식가식품(Gourmet Foods), 제작자/장인/라이프스타일(Makers/Artisans/Lifestyle)로 구분
- 주요 판매상품은 농산물, 해산물, 축산물, 계란, 와인, 커피·차, 베이커리, 유제품, 오일, 가공식품, 수공예품, 푸드 트럭 등으로 이루어짐

고스포드 시티 파머스마켓 방문 사진 자료



##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호주 시드니(NSW 주의회 등)
활동 목적	NSW주의회 예방 및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NSW주 투자청,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등 방문 및 브리핑 청취 NSW주 한인사회 주요인사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 기간	2022.10.18.~10.24.

활동자	성 명	이속자 (서명)
		소 속
<b>검 토 의 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주는 서울시와 1991년부터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교류 30주년이 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li> <li>○ 올해 7월, NSW주 총리인 도미니크 페로테이가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 바이오허브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창업 지원시설을 시찰했음.</li> <li>○ NSW주는 호주의 경제중심지로서 각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과 금융, 바이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지역으로, 이번 시찰단은 서울시-NSW주 간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간의 창업 보육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됨.</li> <li>○ 결과적으로 도미니크 페로테이 총리의 재방문 의사를 확인하고, 시드니 스타트업, NSW 투자청 방문을 통해 창업정책과 해외투자유치,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현지 무역지원기관(코트라 시드니무역관) 방문을 통해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울기업 지원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음.</li> <li>○ 또한, 약 5만 2천명의 교민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 상호 민간 교류 활성화와 호주 교민 지위 향상 등을 위해 호주 지역 정치권과 명사를 방문하여 기존에 개발도상국 위주의 서울시 국제협력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음.</li> <li>○ 특히, 우리 위원회의 호주 방문 후 NSW주 한인회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하여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교민사회를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음.</li> </ul>		

활동자	성 명	최민규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 검 토 의 견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1.10.)되면서 종전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 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됨.
-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지방기관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과 구성 형태에 대한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공무국외여행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NSW주의회의 운영형태와 권한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음.
- 호주의 처음이자 가장 오래된 의회인 NSW 주의회는 영국에서 파생되었지만 변형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주의회는 상원(42명, 비례대표), 하원(93명, 우선순위투표제)으로 각각 32개와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은 법률안 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하원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함.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기관특별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단체장 의회 선출형’, ‘지방의원 집행기관 참여형’, ‘단체장 권한 분산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기관구성의 유형은 다를 수 있으나 주민의 선택권과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선출직인 지방의원 외의 사람을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기관특별법」은 각료나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지방일수록 전반적으로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견제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지역 명망가 중심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양원제를 도입하여 권력의 집중을 견제해야 하나 ‘지방의원 집행기관 참여형’과 ‘단체장 권한 분산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음.
- 또한, ‘지방의원 집행기관 참여형’과 유사한 NSW주의회의 운영을 참고하면, 주류 정당 이외에도 군소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바, 양당제 또는 과두정당제 우리나라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지방기관특별법」이나 유사법률에 대한 의견 요청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제도간의 장단점을 피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음.

활동자	성명	김동욱 (서명)
	소속	기획경제위원회

**점 토 의 견**

- NSW주는 금융과 바이오,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창업보육기관임.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는 시드니시 중심에 위치한 정부 소유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각 층별로 피쉬버너, 스톤앤처크, 탱크스트림, 웨스트팩, 오피스이노베이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민간 스타트업 보육기관이 창업 단계별 보육 사업을 추진함.
- 서울시 창업보육 기관은 시설관리부터 투자유치 지원까지 주로 SBA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NSW주와 비교할 때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스케일업 과정에서 중요한 투자유치는 대기업이 스타트업 육성과정에 참여하는 NSW주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업 평가에 따라 기업당 100만 호주달러(약 9억원) 규모의 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NSW주에 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금은 다소 열악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정부모태펀드의 규모 축소와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유치 실패를 겪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활용한 펀드투자 외에도 자체적인 대규모 자금지원 정책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또한, 국내 대기업의 스타트업 보육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연계한 투자유치를 통해 스케일업에 활용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활동자	성 명	김지향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b>점 토 의 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와 비슷한 시기에 신규로 설립된 조직이나,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내 조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Invest Seoul과는 달리 총리 및 총리내각부 산하 조직으로 설립되었다가 NSW 정부 내 조직으로 전환되어 정부 내 그룹 지위를 유지함.</li> <li>○ 시드니, 웨스턴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와 테크 센트럴 스케일업 허브를 관리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글로벌 투자 및 인재 유치, 핵심 업종/부문 성장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촉진, 스타트업 육성, 국제 무역 진흥 등 폭넓은 투자, 유치 및 무역 기능을 수행함.</li> <li>○ 단기간에 미국, 중국, 인도, 중동,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영국 등 주요 시장에 국제 오피스를 설치하여 국제적인 투자 및 무역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킴.</li> <li>○ 사실상 서울시 산하기관 중 SBA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으나 SBA가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R&amp;D, 국제투자유치 및 투자, 기업 해외 진출 등을 망라하고 있음.</li> <li>○ SBA는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을 예정이며, 종전의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지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제정책 실행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NSW투자청과 같이 주요 시장에 대한 국제오피스 확보, 중앙정부와 연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li> <li>○ 또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를 활용한 핀테크, 금융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고 세제감면 혜택과 신속한 인허가, 규제완화, 교육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li> </ul>		

활동자	성 명	신복자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은 대양주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무역지원기관이며, 국내기업의 호주 투자처 소개와 발굴, 호주기업의 한국 내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대 호주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홍콩 순이며, 이중에 미국과 영국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호주 對세계 투자유치 국가별 추이(누계)> (단위: 십억AUD)

순위	국가	2021				2020	2019
		투자액	비중	증가율	5년 증가율	투자액	투자액
1	미국	1,053	25.5	13.60	3.1	927	1,014
2	영국	719	17.4	-6.7	8.5	770	724
3	벨기에	394	9.5	-3.7	8.6	409	348
4	일본	259	6.3	-2.4	3.6	265	245
5	홍콩	127	3.1	-10.1	5.8	141	144
	합계	4,136				4,044	3,924

- 호주의 최대 투자 유치 분야는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산업이며,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보험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광업,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음.
- 최근 가구, 헬스, 소형가전 분야에서 호주기업의 서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기업의 호주 진출은 제한적인 수준임.
- 다만, 호주에서도 한류가 약진하고 있는 바, 문화산업의 호주 진출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대표 브랜드를 이용하여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Kotra와 연계한 호주 진출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NSW주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이 활황이므로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주 총리 방문시 서울에 본사가 위치한 대형 건설사와 NSW주를 대표하는 자산투자 회사인 맥쿼리를 활용하여 해외 수주를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함.

활동자	성 명	장태용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NSW주 한인회 요청에 따라 방문일정이 변경되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시드니컨벤션센터 시찰 관련에서 NSW주 한인회 명사 및 교포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검토함.
- 2021년 기준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은 15만 8천여명 수준이며, NSW주에는 약 32.9%(5만 2천명)의 교민이 활동 중으로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은 교민이 거주하는 지역임.
- NSW주 한인회는 1968년 호주 시드니한인회로 출범했으나 2020년부터 명칭을 NSW&시드니 한인회로 변경했음.
- NSW주 한인회는 기존 교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호주 내 소수민족인 한인의 권익향상과 신규 교민의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 이민 1세대들은 주로 60~80년대 초에 이주했으며, 한국문화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수준임. 특히 최근 K-9, 레드백 등 한국 방위산업의 호주 진출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호주 유학 후 정착한 이민 1.5세대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되는 등 호주 지역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재외동포재단과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등을 통해 국내외 한인 정치인과 교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민 2, 3세대 중에는 호주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교민 네트워크 활성화와 한인정치인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서는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을 활용하여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을 신설하면서 서울시립대에 한인정치인이나 교민 2, 3세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커리큘럼을 개설할 것을 제안함.

활동자	성 명	홍국표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점 토 의 견**

- NSW주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총 23억 호주달러의 재정을 투입하여 코로나19 검사역량 강화, 전문 클리닉 추가 설치, 중증 감염자 치료시설 확대 등의 보건정책과 고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급여세 경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연방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채권자의 법정요구액과 파산신청 기준액 상향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local)에서도 고용보전수당, 구직촉진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사회주택과 저렴주택 등의 주택정책을 변경·정비했음.
- 2021년 델타변이 등 다양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장기간의 봉쇄정책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의 피해가 증가하자 2021년 12월 15일부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해제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9일만에 제한조치를 재실시함.
- 2022년 3월부터 제한조치를 다시 완화하기 시작하여 9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됨.
- 종전 호주 자유당(현 NSW주 집권당)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을 기초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됨.
- 다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도미니크 페로테이 총리는 지난 7월 방한시 서울시 창업보육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등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23년 재방한이 성사되면 신용보증재단, SBA 등 서울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기관을 소개하여 정책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